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 경로모형 검증*

박 갑 제

임 성 문†

충북대학교

본 연구는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애가 특권 분노에 영향을 미치고 특권 분노가 성적 지배에 영향을 미쳐 성폭력으로 연결되는 경로와, 자기애가 허용적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허용적 성태도가 성적 대상화에 영향을 미쳐 성폭력으로 연결되는 경로로 구성된 이중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경로의 2차 매개변인인 성적 지배와 성적 대상화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알콜사용과 강간통념수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모형적합성과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충청지역 4개 대학교에서 수집한 368명의 질문지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였다. 모형검증 결과, 다양한 대안모형과 적합도 비교에서 1, 2차 매개변인들이 완전 매개하는 연구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의 성적 지배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성적 지배동기가 높으면 알콜사용 수준이 높을 때 또는 강간통념수용 수준이 높을 때 성폭력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제언이 기술되었다.

주요어 : 성폭력, 자기애, 성적 지배, 허용적 성태도, 성적 대상화, 자기애적 분노, 강간통념수용, 알콜사용

* 이 논문은 2011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임성문,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성봉로 410

Tel : 043-261-2190, E-mail : sungmoon@chungbuk.ac.kr

요즘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남성의 성폭력¹⁾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통령 후보가 출연한 정책토론 방송에서 성범죄에 관한 대책마련이 하나의 이슈였던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KBS, 2012, 11, 26). 지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성폭력은 대개 낯선 치한에 의해 벌어지는 극단적인 유형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성폭력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극단적 폭력이 사용되기 보다는 성관계를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폭력 피해 조사 자료에서 사귀는 사람의 끈질긴 요구로 인해 성관계를 가졌던 경험이 54%로 가장 높았고, 아는 사람의 강요도 12.2%로 나타나 아는 사람의 심리적인 강제에 의한 성폭력의 비율이 높았으며, 아는 사람의 물리력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던 경험은 14%이었다(이미정, 변화순, 김은정, 2009).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2011)의 상담통계 현황에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상담건수가 85.1%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유형에 있어서는 성추행이 40.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해자나 사법기관 적발 사례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나 경찰청의 자료에서도 성폭력에서 면식범의 비율이 50%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경찰청, 2012; 전영실 등, 2007). 이처럼 대개의 성폭력은 데이트나 가정, 직장 등의 일상적 장면에서 가까운 사람에 의해 강제나 강요의 형태로 일어난다.

성폭력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이미 범행 사실이 적발된 가해자나 재소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점차 성폭력 발생 추정치에 비해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매우 적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법기관에 적발되는 성폭력 사례가 실제 발생하는 사례에 비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시각이 형성되었다. 이때부터 적발된 가해자나 재소자가 아닌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연구가 시작되었다(Koss & Oros, 1982).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성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성향으로 제안된 자기에에 주목하였다(Abbey, Jaues-Tiura, & LeBreton, 2011; Baumeister, Catanese, & Wallace, 2002; Kosson, Kelly, & White, 1997; Ryan, Weikel, & Sprechini, 2008; Wildman & McNulty, 2010). 자기에에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자기고양적 인지왜곡, 특권의식, 존경욕구, 낮은 공감수준, 대인관계에서의 착취 등을 특성으로 하는 개인의 성격 성향이다(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94).

성폭력 연구자들은 개인에게서 자기에 성향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평가나 거절 경험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점과, 주로 재소자 대상의 연구에서 성폭력의 원인으로 연구되는 정신병질적 성격과 자기에적 성격이 공감결여, 착취, 충동성 등에서 유사한 특징을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자기에의 일반적 특징인 부정적 평가 또는 거절에 대한 민감성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이 특징이 성적인 장면에서도 나타나기 쉽다고 제안하였다(Baumeister et al, 2002; Ryan et al, 2008; Wildman & McNulty, 2010). 특히 성폭력에 관한 연구를 개관하

1)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행해지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성폭력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의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형태로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여 자기애적 심리저항(narcissistic psychological reactance) 이론을 제시한 Baumeister 등(2002)은 모든 남성에게서 자신의 성적 요구가 거절되면 성관계를 더욱 요구하고 싶어 하는 심리적 저항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남성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지만 자기애 성향이 높은 남성의 경우 상대의 거절을 자기개념이 훼손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심리적 저항이 훨씬 커져서 성적인 강요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자기애적 특성이 정신병질적 성격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Abbey et al, 2011; Kosson et al, 1997). 이러한 연구자들은 정신병질적 성격을 자기애적인 과대자기, 공감 또는 죄책감 및 배려의 결여, 충동조절 부족, 타인을 도구적으로 태우는 태도, 반사회적 행동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 특성 및 일탈적 행동의 묶음으로 정의하면서 자기애적 특성이 정신병질적 성격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자들이 성폭력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자기애를 지목하였다.

그런데 실상 경험연구에서 나타나는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10에서 .30의 수준의 크지 않은 정적 상관만이 나타난다(Wildman & McNulty, 2010; Williams, Cooper, Howell, Yuille, & Paulhus, 2009).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데이트 폭력의 한 가지 유형으로 다루었던 국내외의 연구에서도 자기애와 성폭력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Ryan et al., 2008), 채소자를 대상으로 자기애를 통해 일반범죄자와 성범죄자를 구분하려는 연구에서는 자기애가 두 유형의 범죄자를 유의미하

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Chantry & Craig, 1994).

본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의 주목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자기애와 성폭력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이유가 두 변인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는 변인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가정하고 자기애와 성폭력 간의 매개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을 설명하는 포괄적 모델인 Malamuth(2003)의 융합모델(confluence model)을 기반으로 자기애적 심리저항이론(narcissistic reactance theory; Baumeister et al, 2002)과 진화심리학적 관점(Buss & Schmitt, 1993; Simpson & Gangestad, 1991)을 적용하여 성적 지배 경로와 허용적 성태도 경로를 갖는 이중경로모형을 구성하였다.

융합모델은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합한 포괄적 모델로서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경험이 성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 성폭력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한다. 이 모델은 다양한 원인들을 근원 요인(distal factor)과 근접 요인(proximal factor)으로 구분하고, 근원 요인이 근접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근접 요인이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융합모델의 근원 요인에는 아동기 학대경험과 청소년기 비행이 위치하며, 근접 요인에는 문란하고 비인격적인 성관계(promiscuous-impersonal sex)와 적대적 남성성(hostile masculinity)이 위치한다. 또한 두 근접 요인들은 다양한 변인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대적 남성 성에는 성적 흥분, 성적 지배, 여성을 향한 적대감, 강간통념수용, 대인간 폭력에 대한 수용 등이 속해 있다. 문란하고 비인격적인 성관계에는 허용적 성태도와 현재의 성관계 상대 수, 과거의 성관계 상대 수 등이 속해 있다

(Malamuth, 2003).

융합모델에서 가정하고 있는 근접 요인 중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 관련될 수 있는 변인은 성적 지배와 허용적 성태도이다. 성적 지배는 성관계의 동기가 상대를 지배하는 데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허용적 성태도는 성관계에 대한 가볍고 유희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능한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경로는 자기애 성향이 높은 남성이 여성에게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강한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로 인해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하려는 동기가 나타나 성적인 강요를 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남성이 성을 여성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폭력이 나타난다는 시각은 여성주의에서 제안된 것이다(Brownmiller, 1975). 여성주의적 입장을 수용한 성폭력 연구들에서 성적 지배동기는 성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Abbey et al., 2011; Malamuth, Linz, Heavey, Barnes, & Acker, 1995). 이러한 연구들은 전체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자기애를 성폭력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자기애가 높은 남성만의 독특한 이유가 필요하다.

Baumeister 등(2002)의 자기애적 심리저항이론에 따르면 성적인 지배동기가 성폭력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지만 성적 지배동기는 자기애적 훼손에 의해 나타난다. Baumeister 등(2002)에 따르면 자기애 성향이 높은 남성들의 여러 특징은 성적인 요구에 대한 심리저항을 증가시킨다. 우선 자기애가 높은 남성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왜곡된 자기고양적 사고를 보인다. 자기애가 높은 남성은 여성에게 성적인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뛰어나고 매력적인

남성인 자신의 성적 제안을 상대 여성이 거절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매력적인 자신과의 성관계를 상대 여성이 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커서 또래 집단에서 우월감을 갖거나 위축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경험을 자랑하려는 동기가 높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수준은 낮다. 이러한 특성들은 자기애가 높은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인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심리적 저항을 크게 높여 여성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손상된 자기개념을 되찾으려 하도록 만들 것이다(Baumeister et al., 2002).

타인의 거절이나 부정적인 평가에 의해 자기개념이 손상되었을 때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공격적인 반응과 함께 분노를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또한 Stuck과 Spore(2002)에 따르면 분노는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뒤의 공격적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실험연구에서 자기애가 높은 사람에게 과제수행 점수를 고의로 낮게 알려 주고 실험과정과 진행자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평가하게 하여 공격적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참가자들은 분노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이 실험 데이터로 부정적 평가와 공격적 반응 사이에서 분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Stuck & Spore, 2002). 반드시 부정적인 평가가 선행하지 않더라도 복수심과 분노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애가 높은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하다(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Brown, 2004; Rhodewalt & Sorrow, 2003).

자기애 성향이 높은 남성은 처음에는 단순히 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에게 성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거절되었을 때에는 자기개념이 훼손되었다고 받아들이고 강한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원래의 과장된 자기개념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성을 지배하려는 강한 동기가 나타나고 성적인 강요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때 분노는 일반적인 분노가 아니라 과장된 자기개념의 훼손에 뒤따르는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만의 고유한 분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애와 성폭력 간 관계에서의 경로 중 하나로 자기애가 자기애적 분노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애적 분노는 성적인 지배동기에 영향을 미쳐 성폭력에 이르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전술한 융합모델(Malamuth, 2003)에서 성적 지배가 속한 근접 요인인 적대적 남성성이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외에 허용적 성태도가 속한 근접 요인인 비인격적 성관계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경로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이중경로모형에서는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과의 가벼운 성관계를 추구하는 남성의 성향이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도록 하여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경로가 설정되었다. 가능한 많은 사람과의 가벼운 성관계를 추구하는 개인의 성향은 성폭력의 한 가지 원인으로 연구되었다. 이 성향은 연구자에 따라 문란하고 비인격적인 성관계(Malamuth, 2003), 개방적 성적지향(sociosexuality; Mouilso & Calhoun, 2012; Yost & Zurbriggen, 2006), 허용적 성태도(Hendrick & Hendrick, 1987) 등으로 다양하게 개념화된다. Campbell, Brunell, Finkel(2006)은 자기애에 관한 연구를 개관하면서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이 대인 관계에서 친밀성보다는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의 제안을

기반으로 Foster, Shira, Campbell(2006)은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인해 성적인 영역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할 것이라 상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는데,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가능한 많은 사람과의 성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연구들에서도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은 연애 상대에 대한 충실성이 낮고(Campbell & Foster, 2002; Jonason, Gregory, Webster, & Schmitt, 2009), 바람을 많이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Foster, & Finkel, 2002). 위와 같은 연구들에 바탕하여 Mouilso와 Calhoun(2012)은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개방적 성적지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방적 성적지향은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설명력이 $\beta = .14$ 에 머물러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된 자기애와 성폭력의 밀접한 관계에 비해 충분치 못한 결과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가 높은 남성의 허용적인 성태도가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을 성적이며 신체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을 의미하는 성적 대상화의 매개효과를 상정하였다. 성적 대상화는 여성을 인격적이며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신체적이고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의미하며,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성폭력의 원인으로 비판받아 왔다(Symanski, Moffitt, & Carr, 2011). 선행연구들은 가능한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려는 성향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태도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성적 지향은 진화심리학에서 짝짓기 전략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남

성은 한 여성과 꾸준한 깊은 관계를 맺는 전략과, 최대한 많은 여성과 가벼운 관계를 맺는 두 종류의 짝짓기 전략을 갖는다. 전자의 전략을 따르는 남성은 정서적 친밀성을 비롯하여 장기간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의 다양한 매력에 가치를 두는 반면, 후자의 전략을 따르는 남성은 정서적 친밀성이나 관계의 충실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특성보다 쉽고 빠르게 유전적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적 단서에 집중한다(Buss & Schmitt, 1993; Simpson & Gangestad, 1991). 이와 같은 제안은 몇 가지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예를 들어 Zelaziewicz와 Pawlowski(2011)에 따르면 개방적 성적지향이 더 높은 남성일수록 가슴이 큰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개방적 성적지향이 높은 남성은 여성의 인격적인 매력보다 신체적 매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ngestad, 1993; Li & Kenrick, 2006).

여성의 신체적 매력을 중요시하는 남성의 태도는 진화에 따라 나타난 짝짓기 전략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전술하였듯 여성주의는 이를 성적 대상화로 개념화하고 성폭력의 커다란 원인으로 지목한다(Symanski et al., 2011). 여성을 정서적 친밀성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 대상이 아닌 신체적이고 성적인 대상으로만 여기는 개인의 태도는 그 자체로 간접적인 성폭력이 될 수도 있으며 보다 직접적인 성폭력의 원인이기도 하다. 가능한 많은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짝짓기 전략은 진화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나 이는 결국 남성이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도록 하여 성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애가 허용적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허용적 성태도가 성적 대상화에 영향을 미쳐 성폭력으로 연결되는 두 번째 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중 경로모형에서 두 경로의 2차 매개변인인 성적 지배와 성적 대상화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알콜사용과 강간통념수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알콜사용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성폭력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제안되었던 상황적 변인이다. 알콜의 섭취가 성폭력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성폭력 연구 초기부터 제안되었다. 해외의 성폭력 연구에 따르면 55%에서 74%의 남성이 성폭력 가해 전에 알콜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Koss, 1988; Muehlenhard & Linton, 1987).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도 성폭력 피해 경험이 가장 높은 20대 후반 여성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가 키스, 애무, 성교를 행한 비율이 각각 48.2%, 41.7%, 35.3%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이미정 등, 2009). 성폭력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서 알콜사용을 지목하는 보다 최근의 연구자들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을 때 알콜을 섭취하면 남성이 여성의 의사를 잘못 받아들이는 빈도가 높아져 성폭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Abbey, 1991; Abbey, Ross, & McDuffie, 1994; Abbey, Ross, McDuffie, & McAuslan, 1996). 여성의 의사에 대한 잘못된 지각은 자기애의 특성 중 하나인 공감 부족과 유사한 특성이다. 자기애적 심리저항 이론을 제안한 Baumeister 등(2002)은 여성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애가 높은 남성들의 심리적 저항을 높이는 한 가지 요소일 수 있으며 이는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 타인에 공감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알콜사용이 성폭력에 있어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그 이유가 알콜사용 때문에 여성의 의사를 잘못 지각한 것이라고 볼 때 자기애가 높은 남성의 경우 알콜사용이 성폭력 가해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강간통념의 수용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요인으로 주목되었던 변인이다. 강간통념은 강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 생각을 의미한다. 성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서 강간통념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강간통념이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적인 사고와 힘의 상대적 우위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규범에 의해서 나타나며 남성들이 여성을 폭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안하였다(Groth, 1979; Koss et al, 1994).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경험자이거나 사회적 처벌이 없다면 성폭력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강간통념의 수용정도가 더 높았으며(Malamuth, 1981), 특히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에서 가해자의 강간통념 수용이 성폭력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Hall & Hirshman, 1991).

국내의 연구에서도 강간통념 수용과 성폭력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이석재, 최상진, 2001), 일반인보다도 성범죄자의 강간통념 수용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준, 2005; 유재두, 송병호, 2009). 특히 유재두와 송병호(2009)의 연구에서는 강간통념 수용의 하위요인 중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지각이 성폭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강간통념의 수용이 공감 능력의 부족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성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간통념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적 사고와 힘의 우위에 의한 내용을 담는다고 볼 때, 대인간 지배성향이 높은 자기애적인 남성에게 강간통념 수용은 성폭력에 대한 동기를 더욱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특권 분노와 성적 지배동기, 허용적 성태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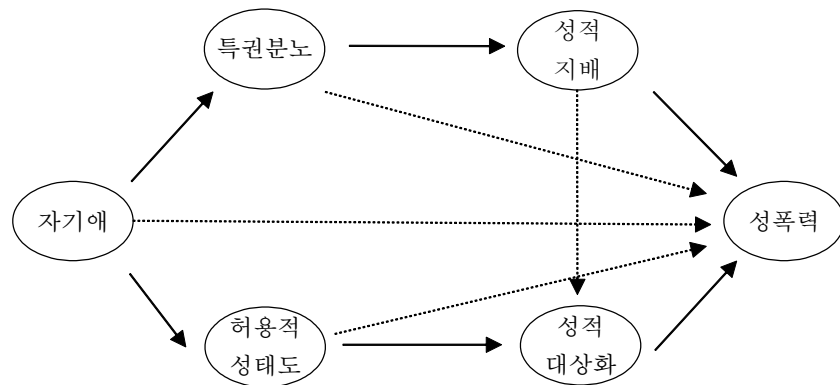


그림 1. 자기애와 성폭력 간 경로모형

주. 실선으로 된 경로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설정된 경로를 의미하고, 점선으로 된 경로는 경쟁모형에서 설정된 경로를 의미함.

성적 대상화가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성적 지배동기와 성폭력의 관계,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알콜사용과 강간통념수용이 조절효과를 갖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충청남·북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의 남자 대학생을 임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368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연령 범위는 19에서 53세였으며 평균은 22.48세였다($SD = 3.01$).

측정도구

자기애적 성격 검사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애적 성격 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Raskin과 Hall(1979, 1981)에 의하여 DSM-III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기준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Raskin과 Terry(1988)가 주성분 분석을 통해 40문항으로 단축하였다. 단축된 40문항은 국내에서 한수정(1999)에 의해 번안되었으며, 번안된 척도는 정남운(2001)에 의해 32문항으로 다시 한 번 단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남운(2001)이 제시한 32문항이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와 같이 자기애성

성격을 반영하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에서 하나를 강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정남운(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으며,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특권분노

비판과 거절에 민감한 자기애적 분노를 측정하기 위하여 Pincus 등(2009)의 병리적 자기애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의 하위 요인인 특권분노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진원(2012)에 의해 국내 타당화된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6점 척도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나는 비판 받을 때 화가 난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반대하면 나는 매우 화가 난다.'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Pincus 등(2009)에서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허용적 성태도

가능한 많은 사람과 자유로운 성관계를 맺으려는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Hendrick과 Hendrick(1987)의 다차원적 성태도 척도(Multidimensional Sexual Attitudes Scale)의 하위 요인인 허용적 성태도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인숙(2009)에 의해 국내 타당화된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의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어쩌다 만난 사람과의 우발적 성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성관계는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해도 좋다.'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Hendrick과 Hendrick(1987)에서 .94, 최인숙(2009)에서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성적 지배

성관계에서 타인을 지배하려는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Nelson(1979)의 성기능 척도(Sexual Functions Measure)에서 성적 지배에 해당하는 8개 항목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을 위해 우선 본 연구자들이 초번역을 한 뒤 다섯 명의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문장의 유연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받아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번역된 척도를 심리학을 전공한 캐나다 국적의 이중언어자가 다시 영어로 역번역하였으며, 역번역된 문항을 원척도와 비교하여 문항의 의미가 같은지를 검토하여 최종 척도를 완성하였다. 이 척도는 응답자에게 각 문항이 자신이 성적 행동을 하는 이유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표시하라는 지시문을 제시한 다음,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아주 중요하다'로 구성된 4점 척도의 8문항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척도의 문항 내용은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 좋아서이다.', '상대가 복종하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Nelson(1979)에서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성적 대상화 척도

여성을 신체적이고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orese(2007)가 개발한 성적 대상화 척도(Sexual Objectification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과정은 성적지배 척도와 동일하였다. 이 척도는 6점 척도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내 여자친구 또는 아내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신체적 매력에 따라 여자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 재미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

도의 내적 합치도는 Morese(2007)에서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1로 나타났다.

알콜사용

응답자가 여성과 단 둘이 만날 때와 성관계시의 알콜사용 정도 및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빈도를 묻는 경우 '거의 매번 마신다'에서 '전혀 마시지 않는다'까지의 6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도를 묻는 경우 '0잔'에서 '5잔 또는 그 이상'까지의 6점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와 정도를 합산한 점수가 사용되었다.

강간통념수용

강간통념의 수용정도를 특정하기 위하여 Burt(1980)가 개발한 강간통념수용 척도(Rape Myths Acceptance Scale)를 이석재(1999)가 수정하고 새로운 문항을 추가로 포함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점 척도의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강간을 당하는 여성은 대개 이전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 '성욕이 왕성한 여자들 대개 강간을 당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이석재(1999)에서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성경험 설문지

성폭력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Koss, Gidycz, Winsniewski(1987)가 개발하고, Abbey, Parkhill, Beshears, Clinton-Sherrod, Zawacki(2006)에 의해 개정된 성경험 설문지(Sexual Experience Survey)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과정은 성적지배 척도와 동일하였다. 이 척도는 14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성적인 강요경험의 유형과 강요의 방법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성적인 강요경험의 유형은 강도에 따라 성기 삽입이 없었던 만지기, 쓰다듬기, 키스 또는 애무 등의 성적인 접촉, 성기 삽입의 시도, 성기 삽입, 도구나 손가락을 이용하거나 항문 또는 구강성교와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성기 삽입의 경험을 몇 번 해보았는지를 직접 묻는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당신은 여성을 강간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한 강간 경험을 묻는 질문이 추가되어 있다. 강요의 방법은 주눅들게 하기, 끈질기게 요구하기, 직위나 권위를 통한 강요, 물리력을 통한 강제, 술이나 약을 사용한 강제의 경험을 몇 번 해보았는지를 직접 묻는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에서 '다섯 번 이상'까지 6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과 방법을 합산한 점수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Abbey 등(2006)에서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2012년 9월에서 10월까지 약 2주간 실시되었다. 각 학교에서 담당 강사에게 사전에 협조를 요청한 후 학생들의 동의하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 대학원생 또는 강사에게 조사 실시지침을 설명하고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경로모형 검증을 위해 AMO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Bootstrap 매개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통계검증에는 SPSS 18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결 과

본 연구의 전체 변인들의 상호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 간 상관이 .12에서 .51 사이의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성폭력은 성적 지배($r = .197$ $p < .01$), 성적 대상화($r = .187$ $p < .01$), 알콜사용($r = .275$ $p < .01$), 강간통념수용($r = .244$ $p < .01$)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다른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폭력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구조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 변인들이 이론개념을 설명해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 지수는 홍세희(2000)가 권장한 비교 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비표준 부합치(Tucker-Lewis Index: TLI),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CFI, TLI는 .9이상이면 모형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는 <.05이면 양호한 모형, <.08이면 어느 정도 양호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X^2(df = 137, N = 368) = 279.479, p = .000$; CFI=.956; TLI=.945; RMSEA=.057로 X^2 값은 유의미하게 산출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할 때 측정변인들이 알맞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특권분노에서 성적 지배를 거치는 경로와 허용적 성태도에서 성적 대상화

표 1. 전체 변인들의 상호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368$)

	1	2	3	4	5	6	7	8
1. 자기애	-							
2. 특권분노	.127*	-						
3. 허용적 성태도	.195**	.301**	-					
4. 성적 지배	.177**	.281**	.375**	-				
5. 성적 대상화	.249**	.193**	.513**	.467**	-			
6. 알콜사용	.189**	.180**	.478**	.198**	.351**	-		
7. 강간통념 수용	.111*	.158**	.276**	.464**	.498**	.170**	-	
8. 성폭력	.080	.016	.071	.197**	.187**	.275**	.244**	-
M	14.16	9.87	41.25	13.36	60.26	10.24	55.78	1.96
SD	5.92	5.55	12.61	4.95	10.48	5.90	26.14	7.61

* $p < .05$, ** $p < .01$

를 거치는 경로로 구성된 이중 경로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모형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2의 연구모형은 자기애가 특권분노에 영향을 미치고 특권분노는 성적 지배에 영향을 미쳐 성폭력으로 연결되는 경로와 자기애가 허용적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허용적 성태도가 성적 대상화에 영향을 미쳐 성폭력으로 연결되는 경로로 구성되었다. 그림 3의 경쟁모형 1은 연구모형에 자기애가 성폭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추가된 모형이다. 그림 4의 경쟁모형 2는 연구모형에 특권 분노가 성폭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추가된 모형이다. 그림 5의 경쟁모형 3은 연구모형에 허용적 성태도가 성폭력에 미치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추가된 모형이다. 그림 6의 경쟁모형 4는 연구모형에 성적 지배가 성적 대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추가된 모형이다. 그림 7의 경쟁모형 5는

연구모형에 경쟁모형 2, 경쟁모형 3의 경로가 추가된 모형이다. 그림 8의 경쟁모형 6은 연구모형에 경쟁모형 1, 경쟁모형 2의 경로가 추가된 모형이다. 그림 9의 경쟁모형 7은 연구모형에 경쟁모형 1, 경쟁모형 3의 경로가 추가된 모형이다. 그림 10의 경쟁모형 8은 연구모형에 경쟁모형 1, 경쟁모형 5의 경로가 추가된 모형이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에서 X^2 값은 유의하게 산출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표들이 양호하므로 모든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X^2 차이검증(김계수, 2010)을 실시하였다. 경쟁모형 1과 연구모형의 df 의 차이는 1이고 X^2 차이는 .110으로 유의도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더 간명한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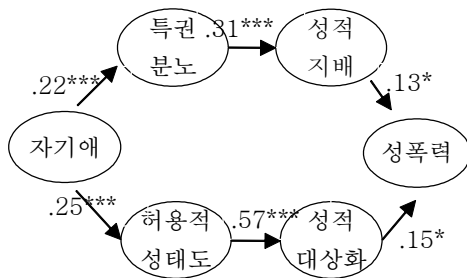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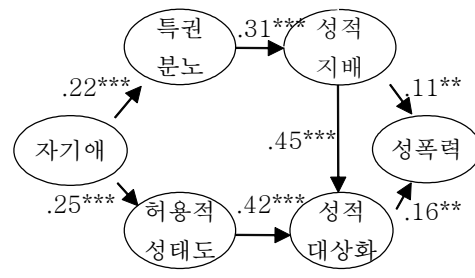


그림 6. 경쟁모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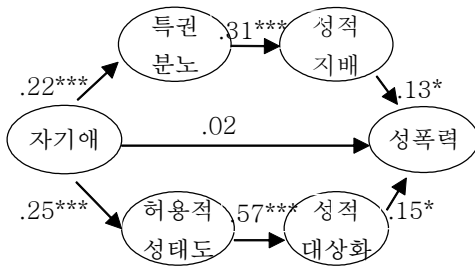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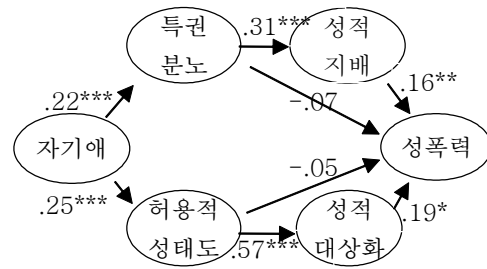


그림 7. 경쟁모형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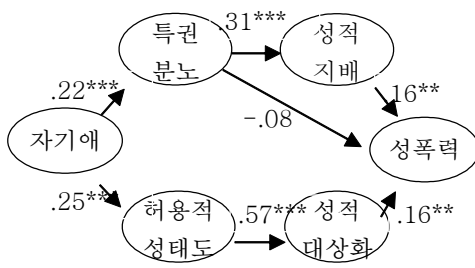


그림 4. 경쟁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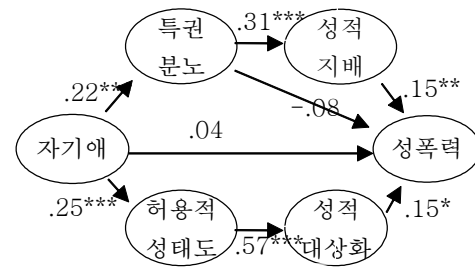


그림 8. 경쟁모형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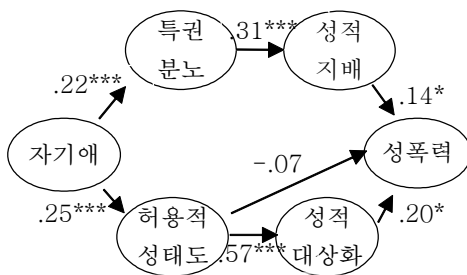


그림 5. 경쟁모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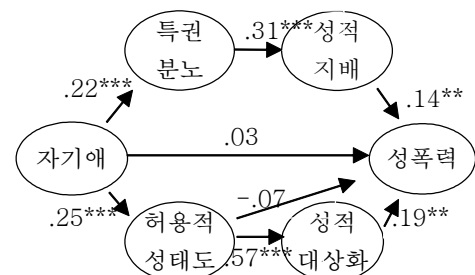


그림 9. 경쟁모형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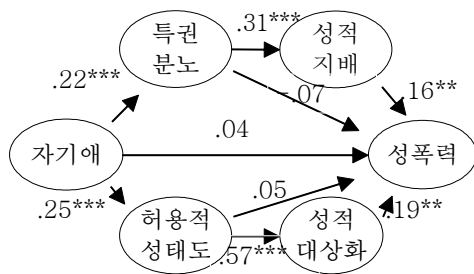


그림 10. 경쟁모형 8

로 나타났다. 경쟁모형 2와 연구모형의 df 의 차이는 1이고 X^2 차이는 .110으로 유의도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더 간단한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형들을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연구모형의 구조경로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모형에서 보면 자기애는 특권분노에 .221, 허용적 성태도에 .248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권분노는 성적 지배에 .312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적 지배는 성폭력에 .135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허용적 성태도는 성적 대상화에 .418의 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적 대상화는 성폭력에 .153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내생변인들의 다중상관자승은 특권분노가 .049, 성적 지배가 .097, 허용적 성태도가 .061, 성적 대상화가 .321, 성폭력이 .042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모형에서 특권분노와 허용적 성태도 경로가 성폭력 전체변량의 약 4%를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모형에서 각 매개변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بوت스트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권분노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 $BC(.02, .13)$ 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였다. 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 $BC(.06, .23)$ 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였다. 성적 지배의 매개효과는 90%신뢰구간에 $BC(.00, .09)$ 로 0을 포함하였으나 초과하지는 않아 유의도 수준 .10에서 유의미하였다. 성적 대상화의 지배효과는 95% 신뢰구간에 $BC(.03, .16)$ 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X^2	df	p	N	TLI	CFI	RMSEA
연구모형	433.966	146	.000	368	.909	.922	.073
경쟁모형 1	433.856	145	.000	368	.908	.922	.074
경쟁모형 2	432.401	145	.000	368	.908	.922	.073
경쟁모형 3	433.104	145	.000	368	.908	.922	.074
경쟁모형 4	431.946	145	.000	368	.925	.937	.066
경쟁모형 5	431.946	144	.000	368	.907	.922	.074
경쟁모형 6	432.078	144	.000	368	.907	.922	.074
경쟁모형 7	432.917	144	.000	368	.907	.922	.074
경쟁모형 8	431.565	143	.000	368	.907	.922	.074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t 검증치

구조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정지수 (t -value)	p
자기애→특권분노	.736	.221	.229	3.219	.001
특권분노→성적 지배	.194	.312	.036	5.394	.001
성적 지배→성폭력	.246	.135	.100	2.461	.05
자기애→허용적 성태도	1.784	.248	.483	3.693	.001
허용적 성태도→성적 대상화	.418	.567	.046	9.075	.001
성적 대상화→성폭력	.109	.153	.043	2.527	.05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특권분노				.049	
성적 지배				.097	
허용적 성태도				.061	
성적 대상화				.321	
성폭력				.042	

알콜사용과 강간통념수용의 조절효과 검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수용된 연구모형의 경로 중 성적 지배에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성적 대상화에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알콜사용과 강간통념수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표집된 자료를 알콜사용과 강간통념수용의 수준에 따라 평균이상인 집단과 평균이하인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에서 성적 지배와

성적 대상화의 수준에 따라 성폭력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알콜사용 상하 집단(평균이상 또는 평균이하)과 강간통념수용 상하집단(평균이상 또는 평균이하)의 사례수 및 각 변인의 상하 집단에 따른 성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면, 알콜사용의 정도와 빈도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균이상과 평균이하인 집단에 따른 성폭력의 평균(표준편차)은 각각 16.08(3.57), 5.72(2.30)로 나타났다. 강간통념이

표 4. 조절변인의 상하 집단에 따른 성폭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알콜사용 (4~24)	상집단	160	16.08	3.57
	하집단	208	5.72	2.30
강간통념수용 (20~180)	상집단	163	80.44	17.62
	하집단	205	36.17	10.52

평균이상과 평균이하인 집단에 따른 성폭력의 평균(표준편차)은 각각 80.44(17.62), 36.17(10.52)로 나타났다.

이어서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검증된 구조모형의 성적 지배와 성적 대상화가 각각 성폭력을 예측하는 경로에서 알콜사용과 강간통념 상하집단(평균이상 또는 평균이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적 지배가 성폭력을 예측하는 경로와 성적 대상화가 성폭력을 예측하는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했다. 그 결과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는 알콜사용과 강간통념수용의 상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적 지배에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알콜사용과 강간통념의 각각의 상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적 지배에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알콜사용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X^2(df=307, N=368)=738.348, p=.000; TLI=.850; RMSEA=.062$ 이고,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는 $X^2(df=308, N=368)=743.376, p=.000; TLI=.853; RMSEA=.062$ 로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성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다만, 성적 지배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동일성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Delta X^2(1, N=368)=3.913, p=.001$). 이것은 성적 지배에서 성폭력으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알콜사용 상하 두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알콜사용이 평균 이상인 집단에서 성적 지배는 성폭력에 $\beta=.17(p<.05)$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알콜

사용이 평균 이하인 집단에서는 성적 지배가 성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성적 지배와 알콜사용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에서 보듯이 성적 지배동기가 낮은 경우, 알콜사용 수준이 낮을 때보다 알콜사용 수준이 높을 때 성폭력이 일정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성적 지배동기가 높은 경우, 알콜사용 수준이 높으면 알콜사용 수준이 낮을 때보다 성폭력의 수준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지배에서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강간통념수용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는 $X^2(df=311, N=368)=725.149, p=.000; TLI=.875; RMSEA=.059$ 이고,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는 $X^2(df=305, N=368)=695.802, p=.000; TLI=.870; RMSEA=.060$ 으로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다만, 성적 지배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Delta X^2(1, N=368)=12.860, p=.000$)에 대한 동일화 제약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성적 지배에서 성폭력으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강간통념수용 상하 두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강간통념수용이 평균이상인 집단에서 성적 지배는 성폭력에 $\beta=.27(p<.001)$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강간통념수용이 평균 이하인 집단에서는 성적 지배가 성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성적 지배와 강간통념수용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성적 지배동기가 낮은 경우, 강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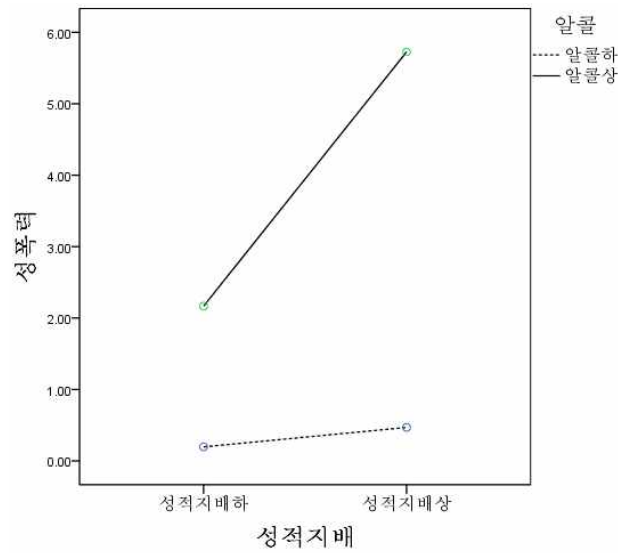


그림 11. 성폭력에 대한 성적 지배와 알콜사용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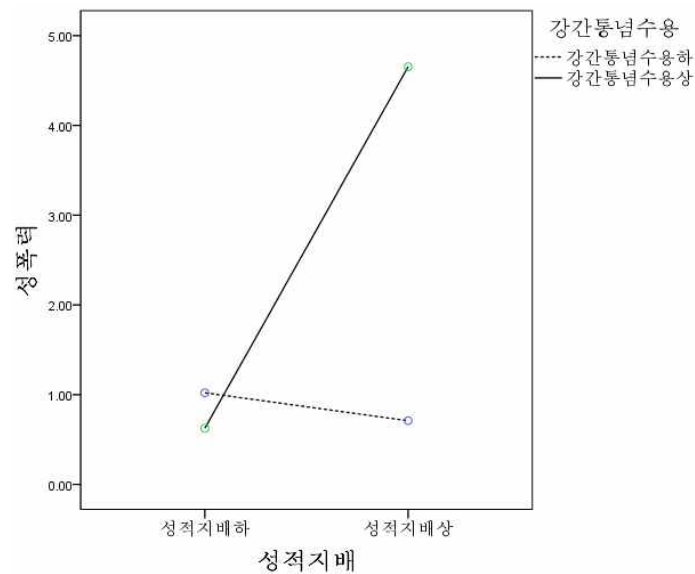


그림 12. 성폭력에 대한 성적 지배와 강간통념수용의 상호작용

통념수용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성폭력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성적 지배동기가 높

은 경우, 강간통념수용 수준이 낮을 때보다 강간통념수용 수준이 높을 때 성폭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특권 분노와 성적 지배의 경로, 허용적 성태도와 성적 대상화의 경로로 구성된 이중경로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성적 지배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성적 대상화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알콜사용과 강간통념수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의 요약과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이 경쟁모형들보다 더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경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애는 특권 분노와 허용적 성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권 분노는 성적 지배에, 허용적 성태도는 성적 대상화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적 지배와 성적 대상화는 성폭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애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칠 때 특권 분노와 성적 지배의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Baumeister 등(2002)의 자기애적 심리지향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성적 지배동기와 허용적 성태도가 성폭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Malamuth(2003)의 융합모델과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Abbey et al., 2006; Abbey et al., 2011; Dean & Malamuth, 1997; Malamuth et al., 1995; Vega & Malamuth, 2007; Wheeler, George, & Dahl, 2002).

연구모형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기애가 높은 남성일수록 여성에게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분노를 일으킬 가

능성이 높다. 이 때 남성이 분노하는 것은 여성의 거절이 자신의 과장된 자기개념을 훼손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기애가 높은 남성은 손상된 자신의 자기개념을 원래의 과장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하려는 동기가 나타난다. 이러한 성적 지배동기는 성적 강요나 강제를 가져와 성폭력을 유발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자기애가 높은 남성일수록 가능한 많은 여성과 가벼운 성관계를 가지려는 경향을 갖는데 이 역시 성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성적 지향이 개방적이어서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할수록, 여성을 정서적 친밀성을 나눌 수 있는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성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신체적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이로 인해 성적 강제와 강요에 의한 성폭력에 이르게 된다.

둘째, 성적 지배가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알콜사용과 강간통념수용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성의 성적 지배동기가 높을 때, 여성과의 만남에서 알콜사용 수준이 높은 경우 성폭력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 지배동기가 높을 때 알콜사용 수준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알콜사용 수준이 낮을 때 성적 지배동기는 성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낮은 알콜사용 수준이 성적 지배동기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남성의 성적 지배동기가 높을 때, 강간통념수용 수준이 높은 경우 성폭력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 지배동기가 높을 때 강간통념수용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강간통념수용 수준이 낮을 때 성적 지배동기는 성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이는 낮은 강간통념수용 수준이 성적 지배동기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알콜사용 수준이 높은 남성일수록 성폭력을 많이 한다는 이론적 제안 및 연구결과(이미정 등, 2009; Abbey, 1991; Abbey et al., 1994; Abbey et al., 1996; Koss, 1988; Muchlenhard & Linton, 1987)와 강간통념을 높게 수용하는 남성일수록 성폭력을 많이 한다는 결과(이석재, 최상진, 2001; 이영준, 2005; 유재두, 송병호, 2009; Hall & Hirshman, 1991; Malamuth, 1981)와 일치하며, 이 요인들이 성적 지배동기와 성폭력의 관계에서 강력한 조절변인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 및 교육적 개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그간 성폭력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꾸준히 제시되어 온 특성은 공감이다. 이에 따라 많은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서 공감 능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치료적 개입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Anderson & Whiston, 2005). 그런데 자기에 성향의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종래의 공감훈련의 초점과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성폭력 연구자들은 자기에 성향이 높은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고의로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Baumeister et al., 2002; Abbey et al., 2011), DSM-IV에서도 자기애적 성격의 특성을 공감 능력의 결여가 아닌 공감에 대한 의사의 결여로 규정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1994). 이는 자기에가 높은 남성은 전반적인 공감 능력의 결여가 아닌 공감에 대한 동기의 결여로 인한 선택적 공감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자기애적

인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공감의 증진을 적용할 때에는 전반적인 공감능력의 향상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공감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에가 높은 남성들에 있어 성적 지배동기와 성적 대상화는 성폭력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며, 알콜사용과 강간통념의 수용은 성적 지배동기와 상호작용 하는 강력한 위험요인이자 보호요인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자기애적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적 개입이나 예방교육에서는 성적인 요구를 거절 받았을 때 이를 개인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수정하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능한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는 경향 자체는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러한 경향이 여성을 비인격적인 신체적 대상으로만 보도록 하여 성폭력이 나타나므로 성적 대상화의 관점을 수정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즉, 자기에 성향의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에는 여성을 성적 욕구 충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관점에서 관계의 친밀감을 나누는 대상으로 관점이 전환 되도록 하는 개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일반인 집단이나 수형자와 같은 임상적 집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차타당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성적 지배의 설명량이 .15, 성적 대상화의 설명량이 .17로 나타나 설명력이 기대만큼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성폭력 자체가 어

는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강력하게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일 수 있다. Malamuth는 그의 융합모델에서 강력한 단일변인의 높은 수준이 아니라, 여러 변인들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남성일수록 성폭력의 횡수가 높아진다고 설명을 하였다(Dean & Malamuth, 1997; Malamuth et al., 1995). 융합모델을 검증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최종 근접 요인의 설명력은 .1에서 .3 정도로 나타나 크게 높지 않았다(Abbey et al, 2006; Abbey et al, 2011; Malamuth et al., 1995). 따라서 차후의 성폭력 연구는 설명력이 큰 원인변인의 발견보다 관련된 중요 변인들을 차원으로 하는 의미있는 프로파일의 발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011 범 죄통계. 서울: 경찰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양진원 (2012). 병리적 자기애 성향자의 웅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정, 변화순, 김은정 (2009).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9(20), 1-24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 131-148
-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이영준 (2005).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사법적 대안 모색. 법무부 · 여성가족부 · 국가청소년위원회 · 한국심리학회 공동주최 심포지움 자료집, 23-33.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유재두, 송병호 (2009). 성범죄자 일반인의 강간통념 비교연구. 한국 공인행정학회보, 36, 133-163.
- 전영실, 강은영, 박형민, 김혜정, 황태정, 정유희 (2007).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 방안. 연구총서, 2007(1), 33-8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KBS (제작사), (2012, 11, 16). 2012 제18대 대선 박근혜 후보 토론회 (TV토론). 서울: KBS.
- 최인숙 (2009). Hendrick 다차원적 성태도 척도의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201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현황.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pds/1>에서 2012, 10, 6 인출.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의 그 근거.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Abbey, A., Jaues-Tiura, A. J., & LeBreton, J. M. (2011). Risk factors for sexual aggression in young men: An expansion of the confluence model. *Aggressive Behavior*, 37(5), 450-464.
- Abbey, A., Parkhill, M. R., Beshears, R., Clinton-Sherrod, A. M., & Zawacki, T. (2006). Cross-sectional predictors of sexual assault perpetra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single african american and caucasian men, *Aggressive Behavior*, 32(1), 54-67.
- Abel, G. G., Barlow, D. H., Blanchard, E. B., & Guild, D. (1977). The components of rapists' sexual arousa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4(8), 895-90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이근후 외 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전은 1994에 출판)
- Anderson, L. A., & Whiston, S. C. (2005). Sexual assault education programs: A meta-analytic examination of their effectivenes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9, 374-388.
- Bartky, S. L. (1990). *Femininity and domination: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oppression*. New York: Routledge.
- Baumeister, R. F., Catanese, K. R., & Wallace, H. M. (2002). Conquest by force: A narcissistic reactance theory of rape and sexual coerc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1), 92-135.
- Baumeister, R. F.,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26-29.
- Baxter, D. J., Barbare, H. E., & Marshall, W. L. (1986). Sexual responses to consenting and forced sex in a large sample of rapists and nonrapists. *Behavioral Research Therapy*, 24(5), 513-520.
- Brown, R. P. (2004). Vengeance is mine: narcissism, vengeance, and the tendency to forg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8(6), 576-584.
- Brownmiller, S. (1975).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Simon & Schhuster.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 Buss, D., & Schmitt, D. (1993). Sexual strategies theory: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human mating. *Psychological Review*, 100, 204-232.
- Chantry, K., & Craig, R. J. (1994). Psychological screening of sexually violent offenders with the MCMI,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0(3), 430-435.
- Capbell, W. K., Brunell, A. B., & Finkel, E. J. (2006). Narcissism, interpersonal self-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s: An agency model approach. In C. Sedikides & S. Spencer (Eds), *Frontiers in social psychology: The self*. Philadelphia, PA: Psychology Press.
- Campbell, W. K., & Foster, C. A. (2002). Narcissism and commitment in romantic relationships: An investment mode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484-495.
- Campbell, W. K., & Foster, C. A., & Finkel, E. J. (2002). Does self-love lead to love for others?

- A story of narcissistic game ply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340-354.
- Dean K. E., & Malamuth, N. M. (1997). Characteristics of aggressors against women: Testing a model using a national sampl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2), 449-455.
- Gangestad, S. (1993). Sexual selection and physical attractiveness: Implications for mating dynamics. *Human Nature*, 4(3), 205-235.
- Groth, N. (1979). *Men who rape*. NY: Plenum.
- Foster, J. D., Shrira, I., Campbell, W. K. (2006). Theoretical models of narcissism, sexuality, and relationship commit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3(3), 367-386.
- Freund, K., Scher, H., Racansky, I. G., Campbell, K., & Heasman, G. (1986). Males disposed to commit rap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5(1), 23-35.
- Hall, G. C. N., & Hirschman, R. (1991). Toward a theory of sexual aggression: A Quadripartite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662-669.
- Heilbrun, A. B., & Loftus, M. P. (1986). The role of sadism and peer pressure in the sexual aggression of 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ex Research*, 22(3), 320-332.
- Hendrick, S. S., & Hendrick, C. (1987). Multidimensionality of sexual attitud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3(4), 502-526.
- Jonason, P. K., Gregory, N. P., Webster, D., & Schmitt, D. P. (2009). The dark triad: Facilitating a short-term mating strategy in me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3(1), 5-18.
- Koss, M. P. (1988). Hidden rape: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in higher education. In A. W. Burgess (Ed.), *Rape and Sexual Assault*, 11. New York: Garland Press.
- Koss, M. P., Goodman, L. A., Browne, A., Fitzgerald, Keita, G. P., & Russo, N. F. (1994). *No safe haven: Male violence against women at home, at work, and in the communit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oss, M. P., Gidycz, C. A., & Winsiewski, N. (1987). The scope of rap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162-170.
- Koss, M. P., & Oros, C. J. (1982). Sexual experience survey: A research instrument investigating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3), 455-457.
- Kosson, D. S., Kelly, J. C., White, J. W. (1997). Psychopathy-related traits predicts self-reported sexual aggression among college 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2), 241-254.
- Li, N., & Kentrick, D. (2006). Sex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references for short-term mates: What, whether, and w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3), 468-489.
- Malamuth, N. M. (2003). Criminal and noncriminal sexual aggressors: Integrating psychopathy in a hierarchical mediational confluence model.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989, 33-58.

- Malamuth, N. M., Linz, D., Heavey, C. L., Barnes, G, & Acker, M. (1995). Using the confluence model of sexual aggression to predict men's conflict with women: A 10-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2), 353-369.
- Malamuth, N. M., Sickloskie, R. J., Koss, M. P., & Tanaka, J. S. (1991). Characteristics of aggressors against women: Testing a model using a national sampl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5), 670-681.
- McDonel, E. C., & McFall, R. M. (1991). Construct validity of two heterosocial perception skill measures for assessing rape proclivity. *Violence and Victims*, 6(1), 17-30.
- Mouilso, R. R., & Calhoun, K. S. (2012). A Mediation Model of the Role of Sociosexuality in the Associations Between Narcissism, Psychopathy, and Sexual Aggression. *Psychology of Violence*, 2(1), 16-27.
- Muehlenhard, C. L., & Linton, M. A. (1987).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86-196.
- Nelson, P. A. (1979). *Personality, sexual function, and sexual behavior: An experiment in method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Florida. USA.
- Pincus, A. L., Ansell, E. B., Pimentel, C. A., Cain, N. M., Wright, A. G. C., & Levy, K. N. (2009).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365-379.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3), 590.
- Raskin, R., & Hall, C. S. (1981).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iv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2), 159-162.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yan, K. M., Weikel, K., & Sprechini, G. (2008). Gender differences in narcissism and courtship violence in dating couples. *Sex Roles*, 58, 802-813.
- Rhodewalt, F., & Sorrow, D. L. (2003). Interpersonal self regulation: Lessons from the study of narcissism. In M. R. Leary & J. P. Tangm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519-535). New York: Guilford.
- Simpson, J. A., & Gangestad, S. W. (1991).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osexuality: Evidence for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70-883.
- Stuck,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4), 509-532.
- Symanski, D. M., Moffitt, L. B., & Carr, E. R. (2011). Sexual objectification of women: Advances to theory and research. *The*

- Counseling Psychologist January*, 39(1), 6-38.
- Vega, V., & Malamuth, N. M. (2007). Predicting sexual aggression: The role of pornography in the context of general and specific risk factors, *Aggressive Behavior*, 33, 104-117.
- Wheeler, J. G., George, W. H., & Dahl, B. J. (2002). Sexually aggressive college males: Empathy as a moderator in the "Confluence Model" of sexu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759-775.
- Wildman, L., & McNulty, J. K. (2010). Sexual narcissism and the perpetration of sexual aggress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4), 926-939.
- Williams, K. M., Cooper, B. S., Howell, T. M., Yuille, J. C., & Paulhus, D. L. (2009). Inferring sexually deviant behavior from corresponding fantasi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6(2), 198-222.
- Yost, M. R., & Zurbriggen, E. L. (2006). Gender differences in the enactment of sociosexuality: An examination of implicit social motives, sexual fantasies, coercive sexual attitudes, and aggressive sexual behavior. *The Journal of Sex Research*, 43(2), 163-173.
- Zelazniewicz, A. M., & Pawlowski, B., (2011). Female breast Size attractiveness for men as a function of sociosexual orientation (restricted vs. unrestricted).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0(6), 1129-1135.
- 논문 투고일 : 2012. 12. 27
1 차 심사일 : 2013. 1. 18
게재 확정일 : 2013. 2. 25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Sexual Aggression: A Path Model

Gop Je Park

Sung moon L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dual path model in which entitlement rage and sexual dominance on the one of two pathway, sexual permissiveness and sexual objectification on another pathwa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sexual aggression. In addition, it was investigated whether alcohol use and rape myths acceptance have moderating effects in the pathways from sexual dominance and sexual objectification to sexual aggression on our path model. Data from 368 male college students in four university in Chungcheong province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hibited that narcissism affected sexual aggression through mediating effects of entitlement rage and sexual dominance, and through mediating effects of sexual permissiveness and sexual objectification. Furthermore, alcohol use and rape myths acceptance only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sexual dominance and sexual aggression on our model. We discussed the meaning of results and the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y.

Key words : *Narcissism, Sexual Aggression, Sexual Dominance, Sexual Permissiveness, Sexual Objectification, Narcissistic Anger, Rape Myth Acceptance, Alcohol Use*